

<옥환기봉> 연작의 갈등 구성 방식 및 주제의 변주 양상

박은정*

- I. 머리말
- II. <옥환기봉> 연작의 연작화 양상
- III. 삼각관계를 통해 본 갈등 구성 방식 및 주제의 변주 양상
- IV. <옥환기봉>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옥환기봉>의 인물 구성은 세 남녀의 삼각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도식적이지 않아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옥환기봉>이 연작을 파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도앵행>은 삼각관계에서 주원성이라는 남성인물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주당을 배치함으로써 남녀의 애정 문제가 아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의 명분론을 문제 삼고 있다. 주당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옥환기봉>이 보여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을 잇고 있으며 여성의 부덕을 강조함으로써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취미삼선록>은 삼각관계에서 여성들끼리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 않고 이 두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부부 갈등을 핵심으로 다루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부의 문제 이면에 있는 자녀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여성관계를 통해 남성적 빈자리를 채워나간다. <한조삼성기봉>은 삼각관계를 확대하여 사각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 갈등은 심화되지만 관계가 단순하고 인물은 선악에 치우치게 되면서 작품은 통속적 흥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옥환기봉>에서 <도앵행>, <취미삼선록>을 거쳐 <한조삼성기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음후에 대한 긍정에서 곱후에 대한 옹호로 시각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연작은 연작 창작을 통해 원작의 관심을 잇기도 하고 그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여 그 자체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관심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옥환기봉>, 연작, 삼각관계, 갈등, 주제, 변주

I. 머리말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옥환기봉> 연작은 모두 네 작품으로, <옥환기봉(玉環奇逢)>과 <도앵행(桃櫻行)> 그리고 <취미삼선록(翠微三仙錄)>과 <한조삼성기봉(漢朝三姓奇逢)>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한조삼성기봉>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은 18세기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확인된 <옥원재합기연>의 표지 안쪽에 동시대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작품의 제목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옥환기봉>을 비롯하여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의 제명도 함께 적혀 있기 때문이다.¹⁾ 지금까지 알려진 연작들 중에서 유통 시기가 밝혀진

1)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

작품도 많지 않거니와 연작으로 묶일 수 있는 작품이 네 편인 경우도 흔하지 않다.

그리고 <옥환기봉> 연작의 창작은 전편의 의식을 그대로 이어 받는 기존 연작의 창작 방식과 차별되는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 관심을 끈다. 네 편의 작품들은 지향하는 주제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편의 주제를 잇기도 하고 그와 상충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연작의 창작은 이본의 생성이나 단순 개작을 넘어선, 모본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옥환기봉> 연작의 다양화는 <옥환기봉>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작의 다양화는 기본적으로 <옥환기봉>이라는 모본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옥환기봉>의 인물이 공고하게 구성하고 있는 삼각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옥환기봉> 연작들은 <옥환기봉> 삼각관계의 변주를 통해 갈등을 재구성하고,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적인 주제를 형성해내게 된다.

그러나 연작들이 <옥환기봉>과만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뒤늦게 파생된 연작은 선행 연작들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옥환기봉> 연작이 연작을 이루는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옥환기봉> 연작이 다채로운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연작의 파생을 가능하게 하는 <옥환기봉> 삼각관계의 특징을 살펴본 후, <옥환기봉> 연작이 <옥환기봉>의 삼각관계를 변주함으로써 이루어내는 새로운 갈등과 주제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작의 변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작의 존재가 소설사적으로 어떤 의의

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187 참조.

를 지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옥환기봉> 연작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네 작품을 연작 또는 속편, 파생작의 관계로 파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세 작품들과 <옥환기봉>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들 작품의 연관관계를 인정하되 이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작품론을 전개시킨 경우이다. 본고의 논의는 전자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의 논의는 이승복, 임치균 두 연구자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²⁾ <옥환기봉>과 나머지 작품과의 연관성은 이승복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이승복은 <한조삼성기봉>을 <옥환기봉>의 속편, <취미삼선록>과 <도앵행>을 그 파생작으로 보고 이들을 연작으로 묶어 논의하였다.³⁾ 임

- 2) 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 - 전편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제3집, 청관고전문학회, 2001. 6.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제6호, 국문학회, 2001.
이승복,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 교육연구학회, 2002. 12.
임치균, 「<한조삼성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가을호 『장서각 낙선재본 고전소설 연구』, 2005. 재수록.
임치균, 「사랑과 갈등에 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보기 -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 -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제30집, 2006. 12.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2006. 12.
- 3)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 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8. 이승복은 <옥환기봉> 연작이 하나의 담론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여성 담론이라는 기준에서 논의하는 것이어서 전반적 양상을 살피는

치균은 <한조삼성기봉>과 <취미삼선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과 <옥환기봉>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이 두 작품 모두 <옥환기봉>의 파생작으로 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연작으로 보는 이승복의 논의를 따르되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II장에서 <옥환기봉> 연작의 연작화 양상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⁴⁾

II. <옥환기봉> 연작의 연작화 양상

<옥환기봉>과 나머지 세 작품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은 이승복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만으로도 이들의 연관성이 부인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⁵⁾ 본고에서

테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 4) 본고의 주텍스트는 규장각본 <옥환기봉>과 <도앵행>, 한국학중앙연구원본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으로 한다. 장편본 <옥환기봉> 중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원래 9권 9책이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1권이 낙질이고, 연세대본 역시 9권 9책으로 비교적 정제된 이본이긴 하나 전하는 8권의 내용 중 1/3 가량이 누락되어 있어서 선본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규장각본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하는 이본 중 가장 온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완질이고, 비교적 선행본으로 추정되어 주텍스트로 삼는다. <도앵행>은 <옥환기봉> 못지않게 많은 이본이 전해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최윤희(「<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윤희는 연구 결과 연세대A본을 선본이라고 하였으나 논문에서 언급된 완질 4종 중 어느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해도 논지 전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규장각본을 주텍스트로 삼는다. <취미삼선록>은 3종의 이본이 있는데 선행 연구(임치균(2006), p.354.)에서 거의 동일한 이본이라고 정리된 바 있다. <한조삼성기봉>은 현재 전하는 것이 유일본이다.
- 5) <옥환기봉>과 나머지 세 작품의 연관성 논의에서 <도앵행>은 상대적으로 밀착도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도앵행>이 역사적 인물인 주당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옥환기봉>이 보여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도앵행>의 이본 중 그 부제가 ‘영평공주

는 <옥환기봉>과 나머지 연작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연작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의 창작 시기를 고증해 보고, 더불어 이들을 연작으로 묶어 논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

먼저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의 경우, <취미삼선록>이 <도앵행>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무양 등 습공주 점〃 세〃의 곁여 취미궁의 가지 못흐더니 양부 초국부인 허씨와 주부 월국부인 정씨을 평생 사모호되 덩부인은 더욱 불길 읍고 혹 와도 궤증과 본궁으로 일우여 불길 읍서 흐더니 명년춘의 영평공주 회원의 근친하녔다 덩부인을 공주 아자 길석의 다려와 슈 월목을신 그 식이를 타 옥공취 취미를 못고 무순간 청흐니 년평과 무양이 옥교의 한가지로 드러오니 잇씨 양전의용은 장성전의 봉안호녔더라 이날 하날 선예 다 모이니 고힌 빗치 일방의 비오고 옥 갖튼 덕과 난초 갖튼 괴질과 어름 갖튼 횡실이며 구슬 가튼 지정이 서로 의기 합하고 덕이 손마져 평생 교도를 밋고 덩부인의 사귀 시녀의 일홈을 크게 드러서니 공주 등이 불너보고 듯던 바의 지나를 일킷더라⁶⁾

이것은 <취미삼선록>의 마무리 부분인데, 삼공주가 양부 초국부인 허씨와 주부 월국부인 정씨를 평생 사모하였는데 평소에 불길이 없다가 명년춘에 영평공주가 정부인을 데려와 몇 달 묵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양부 초국부인은 양송이 무양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내친 양송의 정실이다. 그런데 영평공주가 데려왔다는

본전'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옥환기봉> 권30의 '명제 본전'과 같은 열전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점, 이대본 <도앵행>의 서두가 <옥환기봉>처럼 광무제에 대한 서술로 시작되고 있어 독자들이 이 두 작품을 연관 지어 읽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도앵행>의 주요 화소인 <열녀전>의 백희고사가 <옥환기봉>에서 곽후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두 작품의 관계 또한 상당히 밀접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6) <취미삼선록> pp.141~143.

주부 월국부인 정씨는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도앵행>의 정위주를 일컫는 것이다. 영평공주가 주원성과 혼인하기 전 먼저 정혼했으나 주당의 반대로 파혼하여 수절하며 지냈던 인물이 바로 정위주이다. 이것은 <도앵행>에만 있는 이야기이다.⁷⁾ 그리고 정부인 네 시녀의 이름을 크게 들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도앵행>에 등장하는 정위주의 시비를 일컫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도앵행>이 <취미삼선록>에 선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조삼성기봉>도 <도앵행>과 무관하지 않다.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의 중심인물들이 환생하여 벌이는 이야기이다. 광후와 광무제는 성별을 바꿔 각각 강왕과 조비로, 음후는 박색의 설비로, 그리고 <옥환기봉>에서 광무제의 여동생이었던 영평공주가 강왕의 차비인 위비로 등장한다. 강왕과 위비는 전생에 올케와 시누이 사이였는데, <옥환기봉>에서 영평공주가 광후에게 좋은 시누이이긴 했지만 올케와 시누이를 부부관계로 설정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영평공주가 <한조삼성기봉>의 중심인물로 부각된 데에는 <도앵행>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본고의 생각이다.⁸⁾ <도앵행>은 <옥환기봉>에 형상화된 영평공주를 주인공으로

7) 츠연 추구월의 공취 도라가 삼던의 고희고 고명과 덕첩을 청하니 낭"이 괴특이 녀이샤 월국부인을 봉호시고 정열을 표당하샤 호를 더어 절의부인이라 호시고 <도앵행> p.90.

8) <옥환기봉>의 속편인 <한조삼성기봉>에서 영평을 위옥희라는 인물로 환생시켜 작품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나, <옥환기봉>의 파생작인 <취미삼선록>에 미약하기는 하지만 광후 소생의 세 공주를 중심으로 한 사건의 틀바구니에 영평을 등장시킨 것은, <옥환기봉>에 제시된 영평의 비중이 적다고만 할 수 없고, 또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선명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도앵행>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승복(2002), pp.377~378. <옥환기봉>을 통해 이루어진 영평공주의 긍정적 이미지가 연작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승복의 지적은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승복은 세 작품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작품 모두 <옥환기봉>과의 관계에서만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평공주가 <한조삼성기봉>의 중심인물로 부각된 데에 <옥환기봉>

설정하여 그 주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폭넓게 읽힌 <도앵행>을 통해서 그녀는 더 널리 알려지고 그 이미지도 더욱 선명해지자 급기야 <한조삼성기봉>에서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부상하기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

한편 <도앵행>이나 <취미삼선록>이 여성 주인공에 대한 서술로 시작되는 반면 <한조삼성기봉>은 중심인물의 부친들에 대한 서술로 시작된다. 청암선생, 죽림선생, 운암선생이라는 별호를 지닌 이들은 각각 위비, 조비, 설비의 부친들인데 작품에서는 줄곧 위치사, 조처사, 설처사로 불린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는, <도앵행>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인물인 태원 처사 주당과 같은 부류의 인물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조삼성기봉>의 인물 구성은 <도앵행>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의 경우는 모티프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녀가 성별을 바꾸어 상대의 삶을 살아본다는 설정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⁹⁾ 남녀가 성을 바꾸어 환생하는 설정은, <취미삼선록>에서는 광무제의 꿈을 통해 나타나고 <한조삼성기봉>에서는 그것이 작품의 기본 설정이면서 그 설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조삼성기봉>의 설정 자체를 <취미삼선록>에서 꿈으로 간단히 처리하기보다는 <취미삼선록>의 꿈에 나타난 화소를 확대하여 <한조삼성기봉>을 창작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다. 그리고 <옥환기봉>의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광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광후에 대한 진심어린 옹호 등도 <취미삼선록>에서보다 <한조삼성

과 더불어 <도앵행>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9) 이승복은 ‘성별을 바꿔 상대방의 삶을 살아본다는 설정이 공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작품 사이에 영향의 수수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승복(2006), pp.303~304 참조.

기봉>에서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조삼성기봉>은 18세기 이후 소설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와 모티프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 18세기 중반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밝혀진 <취미삼선록>보다는 뒤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조삼성기봉>이 <취미삼선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¹⁰⁾ 왜냐하면 후편에서는 전편의 내용을 축소·요약하기보다는 전편의 내용 중 쟁점이 될 만하거나 필사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것을 가져와 확대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세 작품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미삼선록>에 기록된 <도앵행>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도앵행>이 <취미삼선록>에 선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두 작품은 <옥환기봉>과 함께 18세기 중반 이전에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옥환기봉>, <도앵행>, <취미삼선록> 순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조삼성기봉>의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한조삼성기봉>은 그 내용이 <옥환기봉>과 상당히 밀착된 것이어서 만약 동시대에 유통되었다면 분명히 이들과 함께 작품 목록에 언급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조삼성기봉>은 글씨체가 전형적인 세책본의 글씨체이고 세책본 <옥환

10)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 임치균은, 여성의식과 허구화 정도의 측면에서 <취미삼선록>이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설명함으로써 <취미삼선록>이 <한조삼성기봉>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임치균(2006), p.362 참조) <취미삼선록>이 <한조삼성기봉>보다 앞선 작품일 것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추측의 근거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여성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해서 꼭 시간상으로 후대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후대로 갈수록 가문의식이 강화되고 여성의식은 퇴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기봉>에 언급이 있는 등 일반적인 세책본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서 세책본으로 창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¹¹⁾ <한조삼성기봉>은 장편본 <옥환기봉> 계열의 대본을 읽은 전문독자¹²⁾ 또는 전문작가¹³⁾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본다면 <옥환기봉>, <도앵행>, <취미삼선록>의 창작 시기와 달리 <한조삼성기봉>의 창작 시기는 좀 더 후대로 내려오게 된다. 지금 현재 전하는 이본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세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의 마지막 즈음에 세책을 목적으로 창작되었으나 세책이 쇠퇴함과 동시에 유통은 크게 되지 않았던 작품이 아닐까 한다. 물론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작의 창작 순서는 잠정적으로나마 <옥환기봉>, <도앵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

- 11) 세책가소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본이 흔하지 않으며, 한문본은 없고 국문본만 있다. 작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10책 내외이거나 그 이상의 분량이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 전개가 복잡하고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중국을 무대로 해서 지배질서의 위기를 현실에서 절감되는 갈등과 복합시켜 다루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p.534) <한조삼성기봉>은 이러한 세책가소설의 특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 12) 동양문고 세책본 소설 세책장부를 통해 다양한 신분 계층의 대출인이 있었고 그 중 전문독자라고 할 만한 부류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전문독자들은 아주 짙막한 작품에서부터 장편가문소설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양한 작품들을 폭넓게 향유했던 인물들인데 이들의 성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탐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유통양상 -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12. pp.84~90 참조.) 이들 전문독자들은 그 독서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이미 다양한 유형의 고전소설을 섭렵했으리라 생각되고 그러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성을 고려한 의도적인 창작을 한 전문작가로 활동했을 수 있다고 본다.
- 13) 세책가에서 기존의 작품을 모아 영업을 하기만 해서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이미 있는 유형을 변형시켜 만든 더욱 흥미로운 작품을 작가에게 주문해 보수를 주고 사들여 영업의 중목을 늘렸을 것이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꾸며 분량을 늘리면 수익이 증대되어, 가문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생겨나고 크게 환영받았다고 생각된다. 조동일, 앞의 책, pp.534~535.

봉> 순으로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들 네 편의 작품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옥환기봉>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네 작품을 아울러 연작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도앵행>은 주변 인물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옥환기봉>과 유사한 주제와 함께 새로운 관심사도 드러내고 있어 파생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파생작보다는 모본과의 영향관계가 강하여 ‘파생형 연작’¹⁴⁾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취미삼선록>은 선행 연구에서는 모두 파생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성격을 좀 더 고민해 보고자 한다. 엄밀히 따진다면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의 파생작적인 성격과 속편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결가지 이야기라는 점에서 <옥환기봉>의 파생작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대부분 <옥환기봉>과 겹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각도를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의 핵심 문제인 부부 갈등을 중심 문제로 다루고 있고, <옥환기봉>의 중심인물인 광무제와 광후, 음후의 2대인 그 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계 혈통 또는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결가지일 수 있지만 모계 혈통 또는 여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또한 2대의 이야기이다. 동일한 주제가 이어지고 남성 2대 즉 아들의 이야기이면 속편이고

14) 한 작품의 일부를 차용하여 별도의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를 파생작이라고 하는데, 한 부분만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부분이 대상 작품과 긴밀한 대응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작품은 연작의 한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두고 파생형 연작이라 지칭할 수 있다.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1999, 태학사, pp.293~293.

딸의 이야기이면 파생작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상당히 겹치긴 하지만 일반적인 속편의 경우에도 2대의 이야기가 전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편에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던 주인공 아들의 이야기를 속편에서 확대 계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이 딸들의 이야기가 전편의 주제나 문제의식과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여성 혈통을 생각하면 여성 2대의 이야기도 속편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¹⁵⁾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의 등장인물이 후대에 환생하여 별이는 이야기이므로 속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¹⁶⁾ 그리고 ‘쇼설을 보고져 홀진디 한도슴성쇠를 볼지어다’라는 작품 말미 필사기에서의 언급을 고려하면 당대 독자들이 <한조삼성기봉>을 <옥환기봉>의 속편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리고

- 15) <옥환기봉> 권2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음후가 동해왕에게, 왕비가 어떠한가 물어보니 동해왕이 좋다고 한다. 음후는 다른 후궁을 들이지 말고 부부 금슬지락을 이루라고 당부한다. 희첩을 두지 말라는 얘기다. 이후 동해왕은 희첩을 두지 않았다.’ 광무제가 첩을 두어 동해왕의 모친인 광후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음후가 그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다. 만약 어떤 작품에서 동해왕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구성하여 아들 2대의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이것은 당연히 속편이라고 할 것이다. 아들 2대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딸들의 이야기로 이어진 속편만 존재하는 것은 <옥환기봉> 자체가 여타의 가문소설과 달리 여성적 관심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 16) 이승복은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의 결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뒷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조삼성기봉>을 <옥환기봉>의 속편으로 규정 짓고 있다. (이승복(2006), p.298 참조) 임치균은 두 작품의 문제의식과 주제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작 형태의 속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생작이라고 하였다. (임치균(2003), pp.42~43 참조)
- 17) 물론 이것은 <옥환기봉> 작가의 서술은 아니다. 세책 필사자이자 <한조삼성기봉>의 작가인 누군가의 서술이거나 세책가에서 광고용으로 쓴 문구일 것이다. 동일한 작가가 속편으로 인식하고 창작했느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대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

동일 작가는 아니지만 <한조삼성기봉>의 작가는 <옥환기봉>에 대한 대응적 속편을 짓겠다는 분명한 창작의식하에 이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네 작품을 모두 아울러 연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소설사에서 일반적인 연작의 형태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연작의 형태가 다양했고¹⁸⁾, 이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아우를 만한 용어가 없는 상황에서 연작의 범주를 유연하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를 위해 분류 또는 범주화가 필요하지만 이런 용어 규정이 정작 작품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재단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속편은 일반적으로 연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파생형 연작의 개념까지 고려한다면 <도앵행> 역시 <옥환기봉> 연작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옥환기봉>을 포함한 이 네 작품은 연작으로 묶

제라고 본다.

18) 최근 몇 년 간 연작을 연구한 학위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 그런데 이 연구 대상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연작의 범주로 재단하면 ‘연작 연구’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파생작은 따로 분류하여 언급하면서도 ‘연작 연구’라는 논문의 큰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응작, 반론작, 보유작 등의 이름을 붙여 주제적 연속성이 없는 작품들 역시 연작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연구의 실상이 이러하기도 하거니와 연작의 범주를 도식적으로 잡으면 작품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광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서정민,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대응적 성격과 연작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2.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12.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6.

김수연, 「<화씨충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관된 주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제의식이 서로 상반된다고는 하나 결국 하나의 문제나 주제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연작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옥환기봉>은 일반적인 연작의 유형에서 벗어나 18세기 이후 연작 창작 방식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대표작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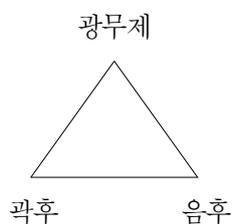
II장에서 연작의 범주를 고민한 이유는, III장의 논의가 가능하려면 이들을 연작으로 묶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옥환기봉> 연작이 일반적 연작에 비해 그 관계가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옥환기봉> 연작의 특수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옥환기봉> 연작 네 작품이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연구만 진행하다 보면 텍스트의 실질적 의미를 온전히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III. 삼각관계를 통해 본 갈등 구성 방식 및 주제의 변주 양상

<옥환기봉> 연작 각 작품들은 <옥환기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냄과 동시에 각 작품의 독자적인 관심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주는 <옥환기봉>의 인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삼각관계의 변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변주가 가능하게 하는 <옥환기봉> 삼각관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연작들의 변주 양상에 대해 고찰해보려고 한다.

1. <옥환기봉> - 삼각관계와 인물 형상의 유연성

<옥환기봉>은 17-18세기 소설 담론이 인물 논의에 경도된 경향에 힘입어 후한의 광무제와 곽후, 음후, 그 중에서도 특히 음후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옥환기봉>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인물의 형상화인데, 이것은 <옥환기봉>이 이루어내고 있는 삼각관계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옥환기봉>은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두 여자 사이의, 그것도 삼생에 걸친 삼각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광무제는 후한을 부흥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지만 광무제의 그러한 모습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광무제의 영웅적 면모는 비중 있게 부각되지 않는다. 핵심은 그와 두 여자의 얽히고설킨 사랑과 운명, 신의의 문제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 <옥환기봉>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각관계는 통속적 남녀관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 않다

19) 기존의 논의에서는 <옥환기봉> 창작이 역사를 보완하려는 의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승복(2000), p.175. 임치균(2002), p.153. 그러나 17-18세기 소설사에 등장한 <여와전> 연작과 같은 작품의 존재를 통해 당시 인물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옥환기봉> 역시 역사 서술의 공란을 메우기 위해 처첩갈등담을 가져왔다기보다 인물에 대한 품평을 하기에 좋은 역사적 소재를 차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옥환기봉> 창작은 역사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는 역사의식의 차원이 아닌 우리 소설사적 맥락에서 그 창작의 동기가 설명된다.

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이루는 광무제와 광후, 음후의 형상화는 도식적이거나 관습적인 통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세 남녀가 만들어내는 세 가지 관계²⁰⁾를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이 세 사람 사이의 가장 일차적인 관계 형성은 광무제와 광후에 의해 이루어진다. 광무제와 광후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맺어진 관계이다. 가솔을 거느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광무제 유수는 당시 으뜸 색용을 지닌 광씨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광씨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조강지처로서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한다. 광무제는 그런 아내에 감사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며 후일 용상에 앉게 해주겠다고 한다. 이 둘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후가 옥환과 더불어 아직 실체를 알 수 없는 음후의 존재를 알게 된다. 광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광무제는 그러한 광후의 모습을 보고 광후를 투기하는 여자로 몰아세운다. 광무제의 이러한 태도는 광후로 하여금 투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게 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광후는 폐위되기에 이른다. 결국 광무제와 광후는 부정적 관계로 치닫게 된 것이다.

광무제와 광후의 긍정적 관계에 작용하는 요소는 초년고생을 함께한 남편과 조강지처로서의 본분과 애정이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적 관계에 작용하는 요소는 광무제가 광후에게 요구하는 부덕과, 광후가 광무제에게 요구하는 신의의 문제이다. 애정과 본분, 부덕과 신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독자들의 평가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20) 이승복은 인물 관계를 통해 이들의 형상화를 고찰한 바 있다. 이승복,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2. pp.468~485 참조.

두 번째로 광무제와 음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광무제는 광씨를 본부인으로 맞아들이긴 했지만 전생의 인연이 음여화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마음 한 곳에 그녀를 담아두고 지냈으며, 언젠가 그녀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기다린다. 우연한 기회에 옥환의 임자를 확인하게 되고 음씨와 혼인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둘은 전생과 천상에 걸쳐 사랑을 쌓아온 삼생의 연분이다. 광무제는 오랫동안 꿈꾸던 인연을 만났고 그녀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음후 역시 옥환의 짝을 기다리며 은거하다 광무제를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광무제는 음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 음후의 애정을 얻는 데 모든 관심을 쏟느라 다른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에 소홀하다. 음후는 광무제의 과도한 애정을 기꺼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무제의 잘못된 태도를 매번 들추어 지적한다. 음후의 불만은 광무제가 자신을 제외한 다양한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광무제의 불만은 음후가 온전히 자신과의 관계에만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관계도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들의 긍정적인 관계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과 그에 따른 사랑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부정적 관계는 가장의 중립성, 도의와 책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보는 이에 따라서 현실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사랑에 공감할 수도 있고, 편벽되고 불성실한 가장의 모습에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후와 음후의 관계이다. 이 두 여자는 광무제라는 한 남자를 매개로 그의 두 여자가 된다. 그러나 이 두 여자의 관계가 고전소설에서 그려지는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처첩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주목된다. 광무제의 정실인 광후는 새로 들어온 음후가 당연히 달갑지 않다. 삼생숙연이라는 비현실적인 명분을 내세운 광무제와 음후의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광후는 음후에 대해 투기심을 느끼지만 그녀의 착한 품성을 알고는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그러다 광무제가 조강정실인 자신을 음후와 같이 귀인에 봉하려고 하자 분노가 폭발한다. 그래서 윤보모의 계략에 동조하면서 음후를 모해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고 음후의 자녀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치자 폐위되기에 이른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거두어 기르는 음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광무제와 음후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

음후는 자신과 광무제의 인연으로 인해 광후가 고통받게 되어 광후에 대해 시종일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자신을 낮추고 광후를 정실로 예우한다. 그리고 광후의 자녀들이 불행해진 것이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친어머니 못지않은 애정으로 키운다. 그러나 광후가 하인들의 계략에 이끌려 자신을 모해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항변한다. 모해의 주체인 윤보모나 왕첩여를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도로 그들을 응징하기도 한다. 처가 가하는 시련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반적인 첩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이들의 긍정적인 관계는 같은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서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 공감은 하지만 자신의 입장은 있는 것이어서 부정적 관계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입장이 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또 누가 더 가련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보는 이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각각의 관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만 한, 즉 일방적인 관계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의 삼각관계는 그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 역시 도식적이지 않으면서 개성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

공고한 삼각관계의 틀이 해체되지 않으면서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그 인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부 판단의 몫을 독자들로 남겨두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옥환기봉>이 다양한 연작을 파생시키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²¹⁾

그러나 <옥환기봉>은 표면적으로 음후라는 인물의 긍정적 재평가에 주력하는 작품이다. 작가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완벽한 여성상을 한 채 작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는 음후를 발견하게 된다. 투기하는 곽후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음후의 현숙한 부덕은 강조함으로써 규범을 표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각관계의 특성상 곽후에 대한 성격 묘사도 사실적이어서 곽후를 온전히 부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대다수의 여성 독자들, 그들은 한 남편의 조강지처이며 곽후와 같은 처지이다. 그들은 원비인 곽후의 편에 서서 곽후를 동정하고 이해하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완벽한 음후의 형상화가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녀에 대해 미묘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옥환기봉> 연작들의 인물 구성 역시 삼각관계의 틀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는다. 팽팽하던 삼각관계의 긴장이 다소 해체되면서 갈등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거나 삼각구조를 확장함으로써 변형을 꾀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옥환기봉>이 표방하는 논리를 잇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면에서 읽을 수 있는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연작 각 작품의 삼각관계의 특징과 그 관계가 빚어내는 갈등과 주제

21) <옥환기봉>의 삼각관계는 다른 인물의 개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회양공주가 이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왕첩여를 들이지만 그녀는 이 공고한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옥환기봉> 연작의 다른 작품들 경우는 이 삼각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면 서 또 다른 다양한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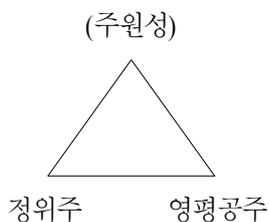
를 살펴보자.

2. <도앵행> - 인물 논의의 확대와 역사적 관심

<도앵행>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핵심 사건은 주원성의 혼인 문제이다. 우선 이와 관계된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주당은 한나라의 고사인데 천하를 주유하다가 백희의 인물됨을 듣고 광무제에게 청혼하여 백희를 며느리로 맞이한다. 이후 광무제가 경시제를 치고 황제가 되자 백희는 영평공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주당이 집을 비운 사이 주당의 부인인 막씨 부인이 태원백 정원의 부유함에 혹하여 그 딸 정위주를 며느리로 맞기로 하고 빙패를 주고받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주당은 왕망의 치하에서 녹을 먹은 정원의 처신에 대해 부당하다고 욕하며 그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이후 영평공주가 정위주의 사연을 알게 되고 정위주와 영평공주의 시비들의 계교로 주당은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정위주도 주원성의 아내로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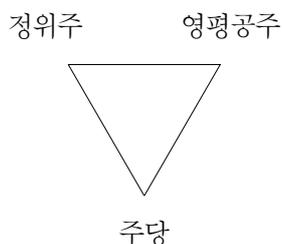
<도앵행> 역시 <옥환기봉>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에 관계된 두 여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삼각관계를 이룬다.



그런데 이 삼각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원성이라는 남성인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삼각관계의 중심인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관계에서 괄호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혼인과 관련하여 정위주나 영평공주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도 하지 않으며 혼인한 영평공주와 별다른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즉 남녀간 애정관계가 긴장관계를 형성하지도 않고 독자적 의미를 지니지도 못한다.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이들의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한다. 다시 말하면 남녀 갈등이 이 작품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들 관계에서 제삼자라고 할 수 있는 주당이다.



주원성이 괄호 속으로 사라지고 그녀들의 시아버지인 주당이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짐작컨대 주당만 아니라면 주원성과 정위주, 영평공주 이 세 사람은 무탈한 삼각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원성은 강경한 인물이 아니고, 정위주는 주원성을 원하고, 영평공주도 정위주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원성이 빠진 자리에 등장한 주당은 그녀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한다. 정위주와 주당의 경우, 정위주는 주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자 하지만 주당이 정위주 아버지의 훼손 문제를 시비 삼으면서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적 처신의 문제에 관하여 자

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명분론의 잣대로 정위주의 아버지 정원을 재단하고, 그 딸이라는 이유로 정위주를 거부한다. 문제는 영평공주가 정위주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주당에게 정위주를 며느리로 맞아들이자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영평공주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주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갈등은 주당의 명분론과 그것을 깨려는 영평공주의 노력 사이에서 일어난다. 삼각관계에서 주원성이 빠지고 주당이 등장함으로써 이 작품의 갈등 관계는 남녀관계 또는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연관된 명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주당이 고수하던 명분론은 정위주의 비복들인 장란과 녹기의 계략에 의해 그 부당함이 드러난다. 그들과의 문답을 통해 주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게 된다.²²⁾ 역사적으로 지조 있는 선비로 일컬어졌던 주당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도앵행>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도앵행>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런 문제지만, <도앵행> 역시 <옥환기봉>에서 제기된 곽후와 음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상식적으로 정위주라는 존재가 영평공주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녀는 정위주를 주씨 가문으로 불러들이려 했을까. 그 해답은 역시 <옥환기봉>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정위주와 영평공주는 <옥환기봉>의 곽후와 음후 관계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도앵행>의 정위주는 주원성과 정식으로 혼인한 것은 아니어서 그의 정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정혼하고 빙물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고 그녀가 주원성을 위해 수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영평공주가 그녀를 주씨 가문으로 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음후가 곽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선후 문제

22) 이 문답의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승복(2002)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에서 ‘선(先)’을 중시하는 관점은 <옥환기봉>의 주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환기봉>에서의 음후는 곽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곽후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앵행>에서 정위주의 지위 회복은 이후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의 창작에 큰 방향을 제공한다. <옥환기봉>이 음후의 편에 선 작품이라면 <도앵행>을 매개로 하여 나머지 두 작품은 곽후의 편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앵행>이 <옥환기봉>에서 제기하는 부덕의 중요성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도앵행>에 등장하는 상층 여성들은 오히려 부덕에 충실한 인물이다.²³⁾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가 허씨를 불러들이는 것은 자기 어머니 곽후의 상황을 통해 가부장 횡포의 모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절실한 것이었지만, <도앵행>의 영평공주에게는 그러해야 할 이유도 크게 없다. 이러저러한 맥락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행동은 첩도 받아들일 만큼 현숙한 부인에 걸맞은 행동으로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분에 집착하는 정위주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작가의 의식이 여성에게 그런 명분론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 번 정혼한 사

23) 작품에 그려진 모든 여성들이 이처럼 명분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장란을 비롯한 정위주의 시비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이런 여성은 모두 하층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양반가 여성은 욕망해서도, 일탈해서도 안 되고 이런 행위는 오직 하층여성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항상 ‘자신들이 섬기는 양반 여성을 위해’라는 전제가 붙은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층 여성의 이런 행동들은 자신의 욕망 추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다. <도앵행>의 작가는 최소한의 욕망 추구와 일탈을 하층 여성을 통해서만 실현시키며, 그나마도 양반 여성을 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식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가문에 시집가기를 거부한 채 혼자 수절하고, 여인은 불이 나도 혼자 당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길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예를 지키는 정위주의 행동이 명분에 사로잡힌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특히 양반가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주당이 수절하고 있는 정위주를 높이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도앵행> 역시 <옥환기봉>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부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도앵행>은 명분을 문제 삼아 역사적 인물인 주당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옥환기봉>에서 전개된 인물 논의가 가정 내적 인물이 아닌 가정 외적 인물의 정치적 소신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는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옥환기봉>이 제기한 여성의 부덕과 관련된 문제를 비슷한 관점에서 지속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도앵행>은 <옥환기봉>의 충실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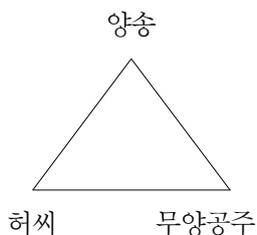
3. <취미삼선록> - 여성의식의 확대 심화

<취미삼선록>은 광후의 딸인 무양공주의 혼인과 그 이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무양공주의 아버지 광무제는 양송이 부덕을 잘 둔다는 이유로 그를 무양공주와 혼인시키려 한다. 양송에

24) 이승복은 ‘이 작품은 여성이 부덕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절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희생과 시련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명분과 이념의 허상에서 비롯된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이승복(2006), p.307.) 그러나 명분을 지키며 수절하였기 때문에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정위주를 생각하면 이 작품이 과연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도앵행> 역시 부덕을 강조하는 <옥환기봉>의 의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는 이미 정실 허씨가 있었는데 양송은 허씨를 내쫓고 새로운 여자를 들이고 싶어 하던 차였다. 양송은 자신에게 아내가 있음을 속이고 무양공주와 혼인하려고 한다. 무양공주는 양송의 인품이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양송과 혼인하게 된다. 이후 허씨의 존재를 알게 되고 허씨를 다시 불러들인다. 그녀들은 서로 화합하며 지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한다.

<취미삼선록>의 인물 관계 역시 <옥환기봉>에서 보여준 삼각관계의 변주를 통해 이루어진다.



<옥환기봉>이 만들어내는 삼각관계는 세 남녀가 부정적 관계와 긍정적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여 서로 애증을 주고받으며 그 틀을 공고히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취미삼선록>에는 남편과 두 여성 사이의 부정적 관계, 그리고 두 여성 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을 뿐이다. 세 남녀의 애정관계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는 이 작품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남편을 문제 삼는 부부 갈등이 이 작품의 핵심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옥환기봉>은 애정 문제, 신의의 문제, 인연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부부 갈등은 <옥환기봉>이 보여준 다양한 갈등 중의 하나였다면 <취미삼선록>은 갈등의 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²⁵⁾

25) <취미삼선록>에서 갈등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그 문제의식이 희석

양송과 허씨, 무양공주, 이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아닌 양송의 인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송의 인품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광무제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취미삼선록>은 무양공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강압적인 혼인으로 인한 여성의 불행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²⁶⁾ 광무제는 오로지 음후라는 한 여자와의 관계만 원하는 사람이며 아버지라는 이름에도 충실하지 못한 부족한 가장이다. 그러므로 양송과 광무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 남성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접점을 통해 우리의 관심은 무양공주의 일에서 광무제와 광후의 일로 옮겨간다. 무양공주가 허씨를 데려오고 양송의 인품을 문제 삼는 것은, 광후를 복원시키고 광무제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옥환기봉>이 음후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창작된 것인 데 반해 <취미삼선록>은 광후로 그 중심이 완전히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즉 양송과 허씨, 무양공주의 관계는 바로 광무제와 광후-음후의 관계의 재현이면서 변형인 것이다.

이 작품이 표면적으로 허씨의 조강 복위를 문제 삼고 있으면서도 본질에 있어서는 광후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려 한다는 것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후반부에 가서 광무제가 삼녀를 데리고

된 것은 아니다. 광후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됨으로써 광후에 대한 광무제의 무신함이 이 관계 파행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나아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는 구조적 모순까지 문제 삼고 있어 오히려 <옥환기봉>이 보여준 여성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27) <취미삼선록>은 무양공주의 이야기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줄곧 광후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신부 무양공주의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광후의 신흘 적 모습과 추호도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그 모습을 본 광무제는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한다. 광후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작가는 이런 세심한 서술에도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꿈 얘기를 한다. 꿈속에서 광무제는 여자인 광후가 되어 광후의 삶을 살아보게 된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그 서러운 일을 당하고 난 뒤 크게 뉘우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무제의 꿈이 어느 순간 광후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다는 점이다.²⁸⁾ 광무제의 꿈을 빌리긴 했지만 결국 <취미삼선록>에 광후가 등장하여 자신이 직접 <옥환기봉>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딸의 혼인 소식을 들은 광후가 무양공주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너의 명이 박흐미 전혀 너의 녀앙이 자녀의게 밋침이라 자금 이 후로 초진한 구곡이 더욱 요란흐니 인심이 가초 괴로오믈 씨닷고 모녀의 정스 비록 가공흐나 차녀명나라 하날피 귀신을 원치 못흐고 사람을 한치 못할지라 당〃한 네법과 덧〃한 닌툼을 녀지 못할지 라 구가의 온공 비약흐너 부귀 위세로 가공한 빗출 뵈지 말며 지성으로 조강을 복합흐너 하싱의 원을 씨치지 말느 (중략) 오즉 조강 복위흐기난 네 칙님이라 원비 도르오느 왕희의 체난 휴손흐미 업고 부마의 원비 널노 흐너 무죄히 영폐흐니 엇지 눈귀을 산란하미 아니리오 너 드르니 부마가 조강을 쓴코 너을 취흐냐 슈뉴불이코져 흐다니 이난 호신 기구하는 풍뉴탕즈의 무신박형이오 덩닌군즈의 되 아니라 엇지 너의 쌍이리오 너 심각흐니 되는 가히 살오느 절 은 웨치 못홀 거시오 옥은 바오도 드리지 못흐나니 너 아히 송죽 갖튼 절조와 추상 갖튼 지기 잇스면 저의 풍경을 관점흐너 홀노 자득 장부의 룬의를 란흐고 남

28) 광당이 곶히 안져시되 풍모 웅위동탕흐며 금실이 지극흐여 다른 흠이 읍고 당의 츠고 계시고 체스숙땀 좌우로 잇시되 다만 집이 간난흐너 광당이 손쥬 밧가라 농업흐고 나는 손쥬 무 킨고 나물 쓰더 삼 습고 뵈 씨 감지를 공괘흐니 몸이 피곤흐고 괴같이 즈심홀 씨 만흐디 존고 사랑흐시고 형제 우익흐며 광당이 후디 극진흐니 마음이 편흐너 즐기지 안일 적업서 부귀 은정이 빅년의 홀갈갓고 천일 보기만 바라더니 광당이 벼슬흐너 덕장군의 이르러 집이 크고 의식이 족흐니 바야흐로 티평을 괴약흐더니 <취미삼선록> pp.126~127.

의 전당을 함하는 불닌이 되지 못하리라 사싱으로 닷틀지언딩 선후을
 착난하녀 조강하난 괴륜이 업게 하라²⁹⁾

곽후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여긴다.³⁰⁾ 그리고 조강을 복위하는 것은 오직 무양공주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부마의 행동은 풍류탕자의 무신박행이고 그래서 부마는 공주의 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생으로 닷틀지언딩 선후을 착란하여 조강을 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곽후의 자기반성이자 자기변호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문제와 딸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취미삼선록>에 그려진 삼각관계의 변주는 모계 중심의 연대기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그녀들만의 연대를 이루어낸다. 광무제와 양송으로 대표되는 남성은 아버지라는 또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들의 생활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는 비어 있다. 그러면 불행한 이 여성들은 그 빈자리를 누구와 함께 채워나가는가. 때로는 자매들과, 때로는 어머니와, 또 때로는 그 남자의 또 다른 여자와 함께한다.

무양공주의 혼인 문제가 정리되고 난 후 광무제는 삼공주를 불러 소원을 묻는다. 무양과 여읍공주는 부마를 피해 취미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니 취미궁에 현판을 써서 부마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한다. 광무제가 현판을 써 주고 이들은 취미궁

29) <취미삼선록> pp.25~27.

30) 무양공주가 정실인 곽후의 입장은 아니지만 양송과 같은 무도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다.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불행과 고민은 허난설헌의 <규원가>에서 익히 보아 왔다. 존경스럽지 못한 남편에 대한 불만, 그러나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 이 이중적 감정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는 <규원가>와, <취미삼선록>의 여성인물들이 내뿜는 탄식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에서 기거하게 된다. 공주들을 보지 못해 화가 난 부마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문을 지키던 당태감에 의해 이조차 거부당하자 군졸을 이끌고 취미궁으로 들어가려고 난동을 부린다. 날양공주의 남편인 두부마에 의해 사태는 진압이 되고 편지를 막은 것이 공주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이 사태가 있은 후 공주들은 부마에게 사죄하고 본부로 돌아간다.

공주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자매들의 정으로 대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불행으로 내몬 남편들을 거부하고 그녀들만의 공간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생활하고자 한다. 여성이 뭔가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원한다’는 의사 표현이 아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다는 것, 더구나 원하지 않는 남성들을 쫓아내고 자신들만의 공간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그녀들의 공간 확보에 실패했지만 이러한 상황의 설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³¹⁾

31) 소인호는 ‘각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방식은 극히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제기된 문제의식을 희석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p. 185.) 그러나 결말에 치우쳐서 이러한 과정이 지나는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과로서 ‘가정으로의 귀환’이 완전한 행복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의 그녀들과 이후의 그녀들의 의식은 분명 다르고, 이전의 그녀들에 대한 부마들의 태도와 이후의 그것 역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한계일 수 있지만 당대적 기준에서 보면 여성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남편을 배제한 채 여성 연대를 이루면서 생활하기를 꿈꾸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문지기 당태감이 부마들의 편지마저 막았기 때문에 부마들이 그토록 노발대발해서 군사까지 몰고 오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공간에서의 생활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대에 현실적으로 그녀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어찌면 그것은 당대에는 실현 불가능한 일종의 판타지로 읽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녀관계의 중요성은 <옥환기봉> 연작 다른 어느 작품에서보다 <취미삼선록>에서 더욱 부각된다. 곽후의 어머니 곽주는 곽후의 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흔히 딸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만일 삼공주를 낳지 않았다면 이 같은 정을 어떻게 느낄 것이며 여생을 누구와 더불어 서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아들의 존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 후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러한 서술은 경험에 밑착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것이다. 아들자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머니와 딸이 가질 수 있는 동성 간 소통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다. 가족 내에서 여성들 간의 유대가 여성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대개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처첩 또는 처처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양공주의 노력으로 허씨가 양부로 돌아오게 된다. 공주는 허씨에게 이런 불행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하고 허씨는 공주의 자신의 지위를 위해 애쓰는 공주의 은혜에 감사한다. 동병상련의 처지에 서로 공감하고 예를 다하여 두 사람은 화합하기에 이른다.³²⁾

이러듯 문답하녀 피츠 일안조심지괴하야 상득하고 친이희미 평일
아든 비 갖고 골륙의 정과 다름이 읍스니 서로 써늬물 앓겨 종일 답
화하다가 파하미 이후 날마다 모다 늦겨냐 맛나를 한하여 고스를 담
논하고 문장을 등데하며 부덕을 강논하녀 날이 오라도록 상의희미 일
신 갖고 공경하미 빈쥬 갖트되 덩이 갖고 말을 이흡하든 동포자미의
지내고 관포의 지괴와 아종의 지음을 귀타 못홀지라³³⁾

32) 이 결과를 두고 ‘처처가 화합하여 남편을 개과시키라’는, 여성에게 보내는 교훈적 메시지로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양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냉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33) <취미삼선록>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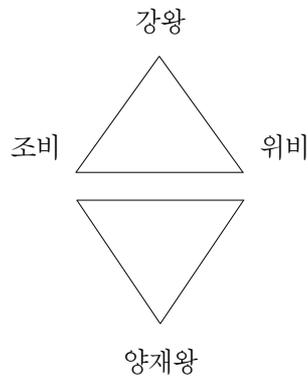
이들은 관중과 포숙의 지기나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도 부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 <취미삼선록>은 가부장과 남편에 의해 상처 받고 소외된 자녀들과 여성들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통해 남성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부부 갈등을 핵심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그와 연관된 가족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도행>에서 시도된 명분론적인 차원에서 조강 복원 문제를,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도 해결하였다. 그럼으로써 음후의 관점이 아닌 곽후의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시각의 전환을 이룩하게 된다.

4. <한조삼성기봉> - 인물과 주제의 통속적 변주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의 구조와 인물 구성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생숙연에 걸친 환생이라는 천상계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옥환기봉>은 천상계의 인물이 한무제 때를 거쳐 광무제 때 환생하여 벌이는 이야기이고, <한조삼성기봉>에서는 이들이 다시 당현종 시절에 환생하여 사생에 걸친 인연의 고리를 이어가게 된다.

<한조삼성기봉> 역시 <옥환기봉>의 광무제와 곽후음후가 환생하여 벌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옥환기봉>의 삼각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옥환기봉>의 다른 연작들이 어떤 식으로든 삼각관계 내에서 변주를 이루어내고 있는 반면 <한조삼성기봉>은 새로운 인물을 개입시켜 사각관계를 형성하고 갈등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다.



<한조삼성기봉>의 인물 관계는 언뜻 강왕과 조비, 위비, 설비가 형성하는 사각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옥환기봉>의 중심인물이었던 음후의 후신인 설비는 <한조삼성기봉>에서 미미한 존재로, 삼각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설비는 괄호 속에 존재하고 나머지 세 사람의 갈등관계를 증폭시키는 인물로 양재왕이 등장하게 된다.³⁴⁾

재왕은 <옥환기봉>의 왕첩여의 환생인데, 왕첩여는 <옥환기봉>에서 광무제와 광후음후의 삼각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 관계를 깨뜨리려는 커녕 거기에 끼어들지조차 못해서 서사 전개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랬던 왕첩여가 재왕으로 환생하여 강왕과 조비·위비의 삼각관계에 개입하게 되고 이들에게 직접적인 시련을 가하게 된다. 재왕의 개입에 의해 위비 대신 조비가 원비가 되는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된다. 그 결과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사각관계를 형성한다.

강왕과 조비의 관계에서 강왕은 조비에 대해 애정이 있었지만 그

34) <한조삼성기봉>의 중심인물은 모두 <옥환기봉> 인물의 환생이다. 그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왕/광후, 조비/광무제, 위비/영평공주, 설소저/음후, 양재왕/왕첩여, 경애(위소저 시비)/경첩여, 위재성(위비 동생)/경왕(살해된 광후 장자), 윤교란/윤보모.

는 원래 호색한이어서 그녀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조비가 투기하자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는다. 조비는 강왕을 원하지만 절절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강왕의 조강 정비라는 자리에 더 연연한다. 강왕과 위비의 경우, 강왕은 위비를 사랑하고 위비는 강왕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강왕은 위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위비 또한 강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조비와 위비의 관계에서 조비는 위비에 적대적이며 그녀를 모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비도 당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관계도 단순하지는 않다. <한조삼성기봉>의 인물들은 <옥환기봉>을 의식하여 형상화했기 때문에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강왕은 호색한에 가깝고, 조비는 이유 없이 투기하는 부정적 형상에 가깝고 위비 또한 소극적 여성의 면모를 많이 보여 준다. 재왕³⁵⁾ 또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를 입히기만 하는 단순한 악인으로 그려진다.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의 삼각관계를 확대하여 인물 구성과 갈등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인물의 형상화 차원에서 보면 <옥환기봉>에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조삼성기봉>의 인물 형상은 끊임없이 <옥환기봉> 인물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광후의 후신인 강왕은 광후의 보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옥환기봉>의 광무제에 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그릴 수가 없다. 조비는 광무제의 후신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광후에 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

35) 재왕은 <한조삼성기봉>에서 강왕과 조비·위비의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을 제외한 삼각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데 상당한 방해를 하며 중심 인물에 시련을 가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옥환기봉>에서 윤보모의 경우와는 다른 수준이다. 재왕은 신분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강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옥환기봉>에서 왕첩여가 비교적 광후, 음후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한조삼성기봉>에는 윤보모의 환생인 윤교란이 등장하여 여전히 윤보모의 역할을 잇고 있다.

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조삼성기봉>의 인물들은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옥환기봉>의 인물들에게 자리의 일부를 내주게 됨으로써 입체적이라기보다는 다소 혼란스러운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조비는 <옥환기봉>에서 보면 곽후의 역할이긴 하지만 <한조삼성기봉>에서도 여전히 곽후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형상화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조삼성기봉>은 조비를 위한 소설이 아니라 곽후를 위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조비는 제2의 곽후이지 <옥환기봉>의 곽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곽후의 보원을 위해 조비는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곽후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곽후보다는 못한 여자로 그려짐으로써 곽후는 더욱 옹호의 여지가 많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곽후의 보원을 위한 창작이라는 것은 작품의 초반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뉴가는 빈한호디 동괴 만코 신첩은 부귀호치로 존귀호미 황녀를 불워 아닐 거시로디 텃연이 락인 고로 인력이 밋지 못호와 빈한호 뉴씨 가문의 드러가오니 삼간모려의 썩삼을 삼고 퍽죽을 거두어 가부를 승순호고 숙미를 우공호며 고모를 효봉홀 제 본부 직산을 기우려 텃하를 도모호오니 비록 텃명이 잇다 호으나 첩의 너조의 공덕인들 적다 호리오 이러툃 간고를 호가지로 지닌다가 나중의 저바리물 현 신긋치 호오니 신첩의 원억호미 엇지 범연호리잇고 인간 윤회의 참여호미 실노 깃부지 아니호으나 구츠이 녀지 되지 말고 남지 되야 저로 녀지 되며 음양을 맞고와 보원홈을 브라나이다³⁶⁾

<한조삼성기봉>의 이러한 입장은 <취미삼선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옥환기봉>에서 곽후에 대한 옹호의 여지를 열어 놓긴 했지만 표면적으로 그녀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취미삼선록>은 곽

36) <한조삼성기봉> 10b-11a.

후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옹호로 돌아섰다. 이에 <한조삼성기봉>은 곽후 입장의 반론을 넘어서서 곽후 입장에서의 보원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남녀가 성별을 바꾸어 환생하고 보복한다는 발상도 <취미삼선록>에서 광무제의 꿈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에 바로 이은 속편이라기보다 <취미삼선록>을 거친 <옥환기봉>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 이러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바꿔서 보복하겠다는 논리는 단순한 뒤집기³⁷⁾의 성격을 띠으로써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음후의 후신인 설비를 박색으로 설정하여 강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발상도 이와 같은 것이다.³⁸⁾ 결국 남성 지배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단순한 복수 차원에 머물게 됨³⁹⁾으로써 이 작품은 세인들의 통속적 흥미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한조삼성기봉>은 상업적 세력을 위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설정 자체가 독자들의 흥미에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옥환기봉>보다 확대된 <한조삼성기봉>의 사각관계도 인물의 형상화보다는 갈등을 강화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인물들의 선악 대비가 뚜렷해지면서 권선징악적 사고가 강화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극단적인 선악의 대립,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철저한 악인, 이런 것들은 통속적 경향을 지향하는

37) 임치균은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을 ‘여성적 시각에서 뒤집어 보기’로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임치균(2004), p.189 참조.

38) 임치균은 ‘예뻐던 음후가 흉상이 되고 그로 인해 총을 얻지 못하는, <옥환기봉>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곽후의 설원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린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작가가 <한조삼성기봉>에서 보여주는 의식, 즉 여성은 남성으로 재생하지 않으면 설원할 수 없고, 덕이 있어도 예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의식에 대해서는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치균(2005), pp.22~23 참조.

39) 이승복(2006), p.301 참조.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그 외 <한조삼성기봉>의 배경이 남녀의 애정 문제와 관련하여 세인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좋은 당현종 시대라는 점, 그리고 비현실적 요소가 확대되어 환상성이 강화된 점, <옥환기봉>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서술함으로써 친절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말을 예상하게 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잠재워버리는 텍스트라는 점 등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조삼성기봉>은 음후를 옹호하는 <옥환기봉>에서 시작하였지만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을 거치면서 곽후에 대한 옹호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였다. <옥환기봉>이 역사서와의 연관성을 지니면서 가문소설로서의 무게감을 지녔다면 <한조삼성기봉>은 철저하게 독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구성과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IV. <옥환기봉>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

18세기는 말 그대로 가문소설의 전성기이다.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긴 했지만 대다수 독자들은 이미 소설이라는 장르에 충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독자의 주축을 이루게 되면서 소설의 주요한 담당층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장편 가문소설의 창작과 유통은 매우 활성화되어 이 장르의 주된 향유층인 여성의 독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상업적인 소설의 생산과 유통도 이루어졌다. <옥환기봉> 연작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40) 일반적으로 통속성의 범주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웃음의 해학성, 성의 관능성, 폭력의 선정성, 몽상의 환상성, 그리고 눈물의 감상성을 거론한다. 선정성의 체험에서 가장 호소력이 강한 것은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 전개되는 선과 악의 팽팽한 대결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pp.323~368 참조.

그런 만큼 이 시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 연작 형태의 소설 작품이 많았지만 연작을 구성하는 편수가 세 편 이상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옥환기봉> 연작은 유통 시기도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연작으로 묶일 수 있는 작품 네 편이 온전히 전하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소설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옥환기봉> 연작은 <옥환기봉>이라는 한 작품에서 출발하였으면서도 <옥환기봉>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자기 논리에 맞게 차용하여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연작이 연대기의 틀에 묶여 일렬로 나란히 정렬되는 것과 달리 <옥환기봉>을 구심점으로 하여 나머지 세 작품들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를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연작들끼리도 연결 고리를 놓지 않고 있다. <옥환기봉> 연작의 이러한 연작 양상을 밝히는 작업은 조선 후기 연작의 보편적 창작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작 창작의 한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옥환기봉>이라는 한 작품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작이 파생될 수 있었던 것은 <옥환기봉>이라는 작품의 힘과,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읽고 적극적으로 연작을 형성해 낸 독자들의 힘이 어우러져서 가능하였다고 본다. <옥환기봉>의 삼각관계와 인물 형상이 지닌 유연성이 그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했고, 그 결과 여기에 대한 논쟁의 장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옥환기봉> 연작들의 면모를 통해 오히려 소설사에 묻혀 있던 <옥환기봉>이라는 뛰어난 작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겠다. 또 소설 창작이라는 방식으로 소설에 대해 대응하는 독자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 후기 소설사의 난숙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옥환기봉> 연작은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통해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관심사를 한자리에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소설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옥환기봉>은 역사적 관심을 통해 가정 내지 가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도앵행>은 역사적 관심을 이으면서 여성의 식 면에서 다소 보수적 시각을 견지한다. <취미삼선록>은 부부 갈등과 가족 문제에 천착하여 심화된 여성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조삼성기봉>은 철저하게 독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작품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옥환기봉>에서 <한조삼성기봉>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우리 소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역사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려던 차원에서, 소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독자를 위해 소설이 창작되는 데까지 이르는 변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 낸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옥환기봉> 연작이 <옥환기봉>의 삼각관계를 변주함으로써 이루어 내는 새로운 갈등과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작업으로 먼저 <옥환기봉> 연작이 연작을 이루는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옥환기봉>과 나머지 연작 세 작품과의 영향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연작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앵행>에만 존재하는 내용이 <취미삼선록>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도앵행>이 <취미삼선록>에 선행하는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영평공주가 <한조삼성기봉>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 <도앵행>의 영향이라는 점, <한조삼성기봉>의 여성 주인공의 부친들이 <도앵행>의 주처사와 같은 부류의 인물들이라는 점 등을 통해 두 작품의 영향관계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과 <도앵행>, <취미삼선록>의 경우 18세기에 유통된 기록이 있

는 데 반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인 세책본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 세 작품보다 후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이 연작의 창작 순서를 잠정적으로나마 <옥환기봉>, <도앵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 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의 실질적 의미를 온전히 밝혀내기 위해 연작의 범주를 유연하게 잡아 이 네 작품을 연작으로 묶어 논의하였다.

<옥환기봉> 연작 각 작품들은 <옥환기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냄과 동시에 각 작품의 독자적인 관심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주는 <옥환기봉>의 인물들이 구성하는 삼각관계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이 삼각관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만 한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그 인물들 역시 입체적 성격을 지님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옥환기봉>이 표면적으로 음후의 긍정적 형상화에 주력하지만 독자들은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입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도앵행>은 삼각관계에서 주원성을 제외시키고 주당을 배치함으로써 <옥환기봉>이 보여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으면서 가정 내적 인물이 아닌 가정 외적 인물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옥환기봉>이 표방했던 규범의 강화를 계승하여 여성의식 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취미삼선록>은 두 여성이 남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계 혈통이 중시되는 가문소설의 반대편에서 여성 2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여성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드러내는 여성의식은 <옥환기봉>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다. <한조삼성기봉>은 삼각관계를 확대하여 사각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물관계의 뒤집기를 시도함으로써 <옥환기봉>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러나 <옥환기봉>과 비교하여, <한조삼성기봉>의

인물들은 선악이 분명하고 악에 대한 징치도 강화되면서 통속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작품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옥환기봉>에서 <한조삼성기봉>에 이르는 과정 동안 음후에 대한 긍정에서 곱후에 대한 옹호로 시각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면모를 지니는 <옥환기봉> 연작은 소설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옥환기봉> 연작은 유통 시기가 밝혀지고 연작으로 묶일 수 있는 네 편의 작품이 온전히 전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연작의 다양성을 통해 <옥환기봉>이라는 작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인 독자들의 힘을 통해 난숙한 조선 후기 소설사를 확인하게 된다. 연작 각 작품은 장편소설의 유교적 이념 지향을 강화하기도 하고, 여성적 관심에 천착하여 진일보한 여성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흥미소를 강화하여 통속화로 나아가기도 한다. <옥환기봉> 연작은 당시 소설사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조선 후기 소설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고전소설이 성장 및 변모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옥환기봉> 연작을 통해 조선후기 고전소설사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옥환기봉> 玉環奇逢 30권 15책, 서울대 규장각본

<옥환기봉> 9권 9책, 연세대본

<옥환기봉> 9권 9책(권1 낙질), 국립중앙도서관본

<도잉힝> 2권 2책, 서울대 규장각본

<도잉힝> 4권 4책, 이대본

<취미삼선록> 2권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본
<한조삼성> 漢朝三姓奇逢 14권 14책, 한국학중앙연구원본

2. 논문

- 김수연, 「<화씨충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pp.1~200.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258.
- 서정민,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대응적 성격과 연작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pp.1~97.
-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p.185.
-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1999, 태학사, 1999. pp.293~294.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운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1호 (통권 38호), 1990. p.187.
-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12. pp.1~77.
- 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 前篇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 淸冠古典文學會,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6. pp.204~225.
- ,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제6호, 국문학회, 태학사, 2001. pp.159~191.
- ,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2. pp.377~378.
- ,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 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고전문학 교육학회, 2006. 8. p.284. p.298.
- ,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 제15집, 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2. pp.468~485.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 1~188.
- 임치균, 「<한조삼성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통권 9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pp.42~43.
- , 「사랑과 갈등에 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 보기: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pp.169~195.
- , 「<취미삼선록> 연구: <옥환기봉><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0집, 월인, 2006. 12. pp. 362~364.
-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12. pp.84~90.
-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pp.1~109.
- ,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1~210.
-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pp.365~399.

3. 단행본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pp.323~368.
-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열녀전』, 예문서원, 1996. pp.215~217.
- 임치균 외, 『장서각 낙선재본 고전소설 연구』, 태학사, 2005. pp.11~4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pp.534~535.

The Aspects of Constructions of Conflicts and Variations on Themes
in the *Okhwangibong* Series

Park, Eun-Jeong

In *Okhwangibong*, there are three characters, involved in a triangular love affair. Their relations, however, are not simple or stereotyped. Thus, there are rooms to interpret each character in varied ways and it causes many derivations of *Okhwangibong*. In case of *Doaenghaeng*, Ju Won Seong is excluded from the love triangle and Ju Dang takes the place. By doing so, the focus is given to the moral duty between fa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stead of a man-woman relationship. *Doaenghaeng* follows the historic characters seen in *Okhwangibong* through the reanalysis of Ju Dang and sticks to the male-centered view by stressing the woman's lack of virtue. In *Chuimisamseonrok*, the two women do not hostilely rival each other in love. Instead, each woman causes conflicts in relations with the husband, and thus the main focus is given to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course of these conflicts, *Chuimisamseonrok* raises the matters of children hidden behind the marital problems and fills the vacancies of a husband through dynamic women's relations. In *Hanjosamseonggibong*, the triangular relation develops into a quadrangular love affair. In result, each relation becomes simple and the characters are inclined to good and evil, though the conflicts among them are deepened. In addition, the lack of women's virtue is strengthened and the logic of the heavenly world continues. That is, *Hanjosamseonggibong* reproduces the formal themes of *Okhwangibong* and popularizes them. The derivative works of *Okhwangibong* build up their own discussions respectively by following the themes of the original work or raising objections. The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give the chances to meet various interests seen in the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ll together.

Key words : *Okhwangibong*, series, a triangular love affair, conflicts,
themes, variations

박은정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 810-2110(학과사무실) 018-527-4483
전자우편: blueye4483@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4월 28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